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삼성복지재단
장 미 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 혁 준

Samsung Welfare Foundation
Jang, Mi Seon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 Jun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cological variables related with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examine their recognition of all the variables affecting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ify the variables into the categories of children (gender, grade, self-efficacy), home environment (employed mother or unemployed mothe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 type of family composition, number of siblings), and peer group environment (peer group). The study subjects were 680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via t-test, F-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relationship among the children variables, home environment variables, and peer group environment variable. (Ed- also note the absence of 'fourth' above)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in children was relatively reviewed by the above three variables and the most affecting variable was self-efficacy in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또래 환경(peer group), 부모-자녀 의사소통(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kok2-Dong Won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2

I. 서 론

오늘날의 아동들은 빠른 변화와 복잡성의 특징을 드러내며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치관의 혼란, 이기심, 무기력, 도덕 불감증,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은 여전히 지식 편중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부만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만 하면 다른 것은 어때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 생활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의 보편화 경향과 자녀수의 격감으로 아동들이 자기중심적이 되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상호 이해와 자기 이해의 측면인 정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Goleman, 1995). 또한 아동기는 자아 성장의 민감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 · 정서 발달의 민감기이기도 하다(유가효, 1997).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가족 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시기로 이때의 성공적인 관계맺음은 이후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성공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서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진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던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이란 사회 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수정 · 보완하여 "정서지능은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으로, 첫째는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이며, 둘째는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시키고 접근하는 능력이고, 셋째는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서적이고 지지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조절능력이다."라고 재정의 내렸다(Mayer & Salovey, 1997).

정서지능은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연합하고 제한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능력을 종합하고 조화시켜 실현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문용린, 1997b). 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 · 감정 ·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정서지능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최근의 연구결과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과 Belsky(1984)의 부모 양육행동의 복합적 요인에 관한 모델의 기본 틀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변인,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또래환경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 변인으로는 성별(강민수, 2001; 곽윤정, 1997; 백수정, 2002; 이주리, 2002; Brody & Hall, 1993; Goleman, 1995), 학년(곽윤정, 1997; 박영애, 최은경, 2001; 이영환, 김현지, 2001; 이주리, 2002; Mayer & Salovey, 1997), 자기효능감(차경림, 2002)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아동의 정서지능과 성별에 따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수정(2002)은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 정서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지능 전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한 반면, 고영숙(2002)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고 하였고, 강민수(2001)는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은 남아보다 여아가, 정서조절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을 살펴보면, Mayer와 Salovey(1997)는 아동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능력도 발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영애와 최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유아와 저학년보다 타인관련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환과 김현지(2001)의 연구에서는 4 · 5학년이 6학년보다 타인조절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차경림(2002)은 자기효능감은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정서인식능력, 정서조절능력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에는 모의 취업(김은정, 1998; 백수정, 2002; 양순임, 2000; 장명순, 2002; 추미란, 1999), 부모-자녀 의사소통(이영환, 김현지, 2001; 이인숙, 1997), 가족구성형태(이주리, 2002; 정길화, 2001), 형제 수(이병래, 1997; 이주리, 2002)가 있다. 가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단위이며,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부모-자녀 관계인 핵가족, 조부모-부모-자녀의 대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의 가족 구성원, 아동의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Medinnus, 1967). 모의 취업 여부와 정서지능을 살펴보면, 백수정(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의 정서조절 및 활용과 정서지능 전체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추미란(1999)과 장명순(2002)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의 아동이 더 높은 정서지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3

환과 김현지(2001)는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정서지능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가족구성형태, 형제수와 정서지능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희(1989)는 부모가 제고할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 지적 · 사회적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주리(2002)의 연구에서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병래(1997)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수가 3명 이상인 유아가 외동보다 타인인식능력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아동, 가정환경 변인 이외에도 또래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래환경(고영숙, 2002; 이주리, 2002)은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준거 집단이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사춘기에 가까울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여 또래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주리(2002)의 연구에서 또래환경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지지, 교환적 협동, 공동활동의 모든 변인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과 유의한 관계를 갖으며, 또래환경에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은 정서지능이 높은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아동은 정서지능에 대한 자아 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하나의 변인 또는 두 개의 변인과 정서지능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만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 5 · 6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에 관해 그들의 지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변인을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기효능감), 가정환경 변인(모의 취업,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구성형태, 형제수), 또래환경 변인(또래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해봄으로써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 즉 가정환경 요인, 또래환경 요인으로 확장하여 이들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적 접촉보다 컴퓨터나 TV를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현대 사회의 아동들에게 실천적 측면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 변인[1]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가?
2) 가정환경 변인[2]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가?
3) 또래환경 변인[3]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가?
4) 아동 변인, 가정환경 변인, 또래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4 · 5 · 6학년 아동 729명이다. 설문지를 작성한 729명의 아동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하거나 미완성 등의 불성실한 응답자 49명을 제외한 총 680명의 아동이 최종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2.31세(SD=3.64), 어머니가 39.71세(SD=3.23)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26명(47.9%), 대학교 졸업이 248명(36.5%), 대학원 졸업이 44명(6.5%)으로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11명(60.4%), 대학교 졸업이 189명(27.8%), 대학원 졸업이 21명(3.1%)으로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보다 아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680)

변 인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아	344(50.6)
	여 아	336(49.4)
학 년	4학년	220(32.4)
	5학년	257(37.8)
	6학년	203(29.9)
형제 수	0명	66(9.7)
	1명	487(71.6)
	2명	112(16.5)
	3명이상	15(2.2)
가족형태	핵가족	556(81.8)
	확대가족	124(18.2)

1) 아동 변인: 성별, 학년, 자기효능감
2) 가정환경 변인: 모의 취업,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구성형태, 형제 수
3) 또래환경 변인: 또래환경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4

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이 303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축업이 85명(12.5%), 상인 · 서비스직이 80명(11.8%), 기타가 78명(11.5%), 공무원이 47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316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98명(14.4%), 상인 · 서비스직이 93명(13.7%), 기타가 80명(11.8%), 교육자가 2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아동의 정서지능 문항, 아동의 자기효능감 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 또래환경 문항, 일반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7a)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인식(8문항), 정서표현(7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항), 정서활용(10문항)의 5개 하위영역(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인식이 .64, 정서표현이 .65, 감정이입이 .68, 정서조절이 .79, 정서활용이 .64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 전체는 .83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

김아영, 차정은(199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김아영(1997)이 중 ·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한혜진(2002)의 도구 중 자기조절효능감(10문항)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아니다'(1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중에 필요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김성연(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방형 의사소통문항(7문항)과 폐쇄형 의사소통문항(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부모-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고, 폐쇄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도구의 문항수는 12문항이며,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4) 또래환경 척도

이주리(1994)가 제작한 도구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지지(9문항), 공동 활동(5문항), 교환적 협동(3문항)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늘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각 영역의 또래환경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지지가 .87, 교환적 협동이 .76, 공동활동이 .74로 나타났으며, 전체 또래환경은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곳을 임의 선정하여 4 · 5 · 6학년 아동 729명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초등학교에 연구 협조를 의뢰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급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설문지를 배포,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여 질문지의 회수율은 100%였으며, 각 학교에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729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9부를 제외하고 총 68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05$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t 검증, F 검증(ANOVA), schéffe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4〉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 변인과 아동의 정서지능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은 정서표현($t=-5.17$, $p<.001$), 정서조절($t=-2.18$, $p<.05$), 정서지능(전체)($t=-1.9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지능(전체)에서 여아($M=1.28$, $SD=.23$)가 남아($M=1.24$, $SD=.26$)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정서표현에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5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N=680)

성별(N) / 정서지능	남아(344)		여아(336)		t 값
	M	SD	M	SD	
정서인식	1.49	.33	1.52	.30	−1.47
정서표현	1.25	.42	1.40	.36	−5.17***
감정이입	1.16	.42	1.15	.40	.45
정서조절	1.21	.36	1.27	.33	−2.18*
정서활용	1.13	.48	1.09	.45	1.13
정서지능(전체)	1.24	.26	1.28	.23	−1.94*

*p〈.05, ***p〈.001

서 여아(M=1.40, SD=.36)가 남아(M=1.25, SD=.42)보다, 정서조절에서 여아(M=1.27, SD=.33)가 남아(M=1.21, SD=.36)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활용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학년에 따른 정서지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éff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정서지능은 감정이입(F=16.92, p〈.001), 정서활용(F=16.82, p〈.001), 정서지능(전체) (F=10.2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분석으로 sché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전체)에서 4학년(M=1.32, SD=.25)이 5학년(M=1.23, SD=.26)과 6학년(M=1.23, SD=.23)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는 감정이입에서 4학년(M=1.27, SD=.40), 5학년(M=1.14, SD=.40), 6학년(M=1.04, SD=.40)이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활용에서 4학년(M=1.25, SD=.45)이 5학년(M=1.03, SD=.47)과 6학년(M=1.05, SD=.44)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N=680)

정서지능	학년	M	SD	F
정서인식	4학년	1.48	.32	1.99
	5학년	1.51	.31	
	6학년	1.54	.31	
정서표현	4학년	1.36	.41	1.92
	5학년	1.29	.38	
	6학년	1.33	.39	
감정이입	4학년	1.27[a]	.40	16.92***
	5학년	1.14[b]	.40	
	6학년	1.04[c]	.40	
정서조절	4학년	1.28	.35	2.36
	5학년	1.23	.35	
	6학년	1.21	.35	
정서활용	4학년	1.25[a]	.45	16.82***
	5학년	1.03[b]	.47	
	6학년	1.05[b]	.44	
정서지능 (전체)	4학년	1.32[a]	.25	10.25***
	5학년	1.23[b]	.26	
	6학년	1.23[b]	.23	

***p〈.001
a, b, c: schéffe 검증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3)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정서지능 모든 하위 영역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r=.40, p〈.001), 정서표현(r=.15, p〈.001), 감정이입(r=.26, p〈.001), 정서조절(r=.55, p〈.001), 정서활용(r=.40, p〈.001), 그리고 정서지능(전체)(r=.5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전체)이 높았으며, 하위 영역으로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 (N=680)

정 서 지 능	자 기 효 능 감
정서인식	.40***
정서표현	.15***
감정이입	.26***
정서조절	.55***
정서활용	.40***
정서지능(전체)	.59***

***p〈.001

2.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정서지능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능(전체)에서 비취업모의 아동(M=1.28, SD=.24)이 취업모의 아동(M=1.24, SD=.25)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09, p〈.05)를 보인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6

〈표 5〉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 · 여 아동의 정서지능

(N=672)주1)

취업여부(N) / 정서지능	취업(176)		비취업(156)		t 값
	M	SD	M	SD	
정서인식	1.50	.32	1.52	.31	−.80
정서표현	1.30	.41	1.35	.38	−1.68
감정이입	1.13	.42	1.17	.40	−1.31
정서조절	1.23	.35	1.26	.35	−1.03
정서활용	1.08	.46	1.14	.47	−1.83
정서지능(전체)	1.24	.25	1.28	.24	−2.09*

*p〈.05

주1) 680명중 무응답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아동의 정서지능(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정서인식(r=.18, p〈.001), 정서표현(r=.24, p〈.001), 감정이입(r=.19, p〈.001), 정서조절(r=.31, p〈.001), 정서활용(r=.37, p〈.001), 그리고 정서지능(전체)(r=.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전체)이 높았으며, 하위 영역으로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

(N=680)

정 서 지 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인식	.18***
정서표현	.24***
감정이입	.19***
정서조절	.31***
정서활용	.37***
정서지능(전체)	.43***

***p〈.001

3)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정서지능(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N=680)

취업여부(N) / 정서지능	핵가족(556)		확대가족(124)		t 값
	M	SD	M	SD	
정서인식	1.50	.32	1.51	.30	−.29
정서표현	1.32	.40	1.33	.38	−.33
감정이입	1.15	.41	1.18	.42	−.78
정서조절	1.24	.35	1.27	.35	−.96
정서활용	1.11	.46	1.12	.47	−.27
정서지능(전체)	1.25	.25	1.27	.23	−.87

4) 형제 수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형제수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제 수에 따라 정서지능(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형제수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

(N=680)

정 서 지 능	형제 수
정서인식	−.06
정서표현	.05
감정이입	.01
정서조절	.02
정서활용	.05
정서지능(전체)	.03

3. 또래환경 변인과 아동의 정서지능

또래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래환경은 정서지능(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환경의 하위영역

〈표 9〉 또래환경과 남 · 여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계수

(N=680)

또래환경 / 정서지능	정서적 지지	교환적 협동	공동 활동	또래환경 (전체)
정서인식	.28***	.25***	.21***	.29***
정서표현	.17***	.15***	.12**	.18***
감정이입	.21***	.16***	.13**	.20***
정서조절	.45***	.34***	.31***	.45***
정서활용	.27***	.16***	.12**	.23***
정서지능(전체)	.46***	.35***	.29***	.45***

**p〈.01, ***p〈.001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7

중 정서적 지지는 정서인식(r=.28, p<.001), 정서표현(r=.17, p<.001), 감정이입(r=.21, p<.001), 정서조절(r=.45, p<.001), 정서활용(r=.27, p<.001), 정서지능(전체)(r=.4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환적 협동은 정서인식(r=.25, p<.001), 정서표현(r=.15, p<.001), 감정이입(r=.16, p<.01), 정서조절(r=.34, p<.001), 정서활용(r=.16, p<.001), 정서지능(전체)(r=.35,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동 활동은 정서인식(r=.21, p<.001), 정서표현(r=.12, p<.01), 감정이입(r=.13, p<.01), 정서조절(r=.31, p<.001), 정서활용(r=.12, p<.01), 정서지능(전체)(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환경(전체)은 정서인식(r=.29, p<.001), 정서표현(r=.18, p<.001), 감정이입(r=.20, p<.001), 정서조절(r=.45, p<.001), 정서활용(r=.23, p<.001), 정서지능(전체)(r=.4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환적 협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공동 활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정서지능(전체)이 높았으며, 모든 하위 영역인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이 높았다.

4. 아동 변인, 가정환경 변인, 또래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기효능감), 가정환경 변인(모의 취업여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구성형태, 형제 수), 또래환경 변인(또래환경)들 가운데 아동의 정서지능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r=.50~.60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또래환경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교환적 협동(r=.68, p<.001)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와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회귀분석에서는 하위 영역을 합친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VIF 10이하(1.02~1.40), TOL 0.1이상(.72~.98)의 값을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1.95~2.08로 나타나 자귀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이 기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살펴본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정서지능(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변인의 자기효능감(β=.43,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부모-자녀 의사소통(β=.20, p<.001), 또래환경(β=.19, p<.001), 학년(β=-.11,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또래환경이 잘 형성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서지능(전체)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지능(전체)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변인의 자기효능감(β=.34,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또래환경(β=.12, p<.01), 학년(β=.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환경이 잘 형성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정서인식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인식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회귀분석

(N=680)

독 립 변 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전체)
		β	β	β	β	β	β
아동 변인	성별[1]	.05	.19***	-.02	.07*	-.04	.07
	학년	.09*	-.01	-.20***	-.06	-.14***	-.11***
	자기효능감	.34***	.05	.17***	.42***	.29***	.43***
가정환경 변인	모의 취업[2]	.01	.04	.01	-.00	.01	.02
	부모-자녀 의사소통	.03	.19***	.07	.09*	.23***	.20***
	가족구성형태[3]	.00	-.00	-.01	.00	-.03	-.01
	형제 수	-.05	.04	.03	.03	.07*	.05
또래환경 변인	또래 환경	.12**	.07	.11*	.23***	.04	.19***
Constant		.49	.49	.85	-.06	-.05	.25
R^2		.19	.11	.13	.37	.24	.45
F		19.00***	9.88***	11.84***	48.44***	26.14***	67.46***

*p<.05, **p<.01, ***p<.001

가변수 : [1] 남아=0, 여아=1, [2] 취업=0, 비취업=1, [3] 핵가족=0, 확대가족=1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8

정서표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환경 변인의 부모-자녀 의사소통(β=.19,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성별(β=.19, p<.001)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여아인 경우 더 높은 정서표현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변인의 학년(β=-.20,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기효능감(β=.17, p<.001), 또래환경(β=.11,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환경이 잘 형성될수록 더 높은 감정이입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이입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변인의 자기효능감(β=.42,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또래환경(β=.23,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β=.09, p<.05), 성별(β=.07,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환경이 잘 형성될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여아인 경우 더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조절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변인의 자기효능감(β=.43,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부모-자녀의사소통(β=.20, p<.001), 또래환경(β=.19, p<.001), 학년(β=-.11,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또래환경이 잘 형성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서활용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활용에 대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요약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생태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기효능감), 가정환경 변인(모의 취업,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구성형태, 형제 수), 또래환경 변인(또래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차이 및 관계, 그리고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아동변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정서지능(전체)과 하위 영역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지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여아의 정서지능이 남아의 정서지능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류순화, 2001;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2002; 박영애, 최은경, 2001; 백수정, 2002; 신은숙, 2000; 오영미, 1997; 이영환, 김현지, 2001; 이주리, 2002; 장명순, 2002; 정선희, 2001; Brody & Hall, 1993; Mayer & Salovey, 1997)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 심리학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성숙이 빠르다는 지금까지의 정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정서처리 학습방법이 다르므로 정서지능도 남·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Brody & Hall, 1993)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 정서지능(전체)과 하위 영역의 감정이입 및 정서활용에서 4학년과 5·6학년이 차이가 있었다. 즉, 정서지능(전체)과 하위 영역의 감정이입과 정서활용에서 5·6학년 아동보다 4학년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낮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고 보고한 이주리(2002)와 류순화(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발달경향성을 밝힌 선행연구들(Mayer & Salovey, 1997; 박영애, 최은경, 2001)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 발달에 의한 지각의 정교성(이주리, 2002)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더 정확히 지각하는데 따른 학년별 지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적성·흥미·특기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활용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느낄만한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박소영(2004)은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비롯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4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학년이 될 수록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어(정현희, 2002)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정서지능을 연구한 차경림(2002)의 연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19

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아동에게 자신과 일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취시키는 일은 정서지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아동보다 정서지능(전체)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비취업모의 자녀의 정서지능이 취업모의 자녀보다 높다는 추미란(1999)과 장명순(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정서지능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부재는 자녀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할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취업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가정에서 부재하는 시간을 불만스러워하는 반면 비취업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안유경, 1994)을 볼 때,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의 심리적 상태와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어머니의 취업에는 취업동기, 근무 시간, 직업 종류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요인들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단순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만이 아닌 취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심층적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가 아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이영환과 김현지(2001)의 연구와 이인숙(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Tizard와 Hughes(1984)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아동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표현을 자주 나눔으로써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며,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친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정서적 힘이 자녀의 사회적 이해와 정서를 발달시켜(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 아동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구성형태와 형제 수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형태가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다고 한 황점숙(1997), 형제수가 많을수록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이주리(2002)와 이병래(199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이 시기 아동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로 만족감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고영숙, 2002) 가족구성 및 형제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더 큼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또래환경 중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환적 협동이 많을수록, 공동 활동이 많을수록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본 결과는 고영숙(2002)과 이주리(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또래와의 교환적 협동이나 공동 활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아동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정서지능이 높은데 반해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혼자라고 느끼는 아동은 자신의 역량과 태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신념을 갖지 못하게 되어 정서지능에 대한 자아 평가를 낮추게 되는 것(이주리, 2002)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 아동에게 미치는 또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아동 변인, 가정환경 변인, 또래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환경,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학년 순으로, 정서표현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감정이입은 학년,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순으로, 정서조절은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부모-자녀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정서활용은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년, 형제 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동의 정서지능에는 아동변인, 가정환경변인, 또래환경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가정환경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주리(200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정서지능에는 개인적 변인인 아동 변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또래를 포함한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서지능은 지능과 달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증진이 가능하다(Goldman, 1995)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요약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아동변인을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전체)과 하위 영역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이 더 높았으며, 4학년이 5 · 6학년보다 정서지능(전체)과 하위 영역의 감정이입 및 정서활용이 더 높았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아동보다 정서지능(전체)이 더 높았고, 부모가 아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구성형태와 형제 수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계가 없었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아동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20

의 또래환경 중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환적 협동이 많을수록, 공동 활동이 많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았다.

넷째, 아동 변인, 가정환경 변인, 또래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전체)는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환경, 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학년 순으로, 정서표현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감정이입은 학년,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순으로, 정서조절은 자기효능감, 또래환경, 부모-자녀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정서활용은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년, 형제 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아동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도구로 사용되어진 설문지의 문항이 다소 많아 아동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응답자 답변의 신뢰도를 감소시켰을 여지가 있다. 또한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묻는 연구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지각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 교사의 지각, 친구의 지각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아야했기 때문에 각 변인들에 대해서 심층 연구 및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수(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숙(2002). 또래환경 및 또래관계의 질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1989). 아버지 역할 수용에 관한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김아영,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1-64.

김은정(1998). 유아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순화(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7a). 종합진로 · 적성검사. 서울: 대교출판부

_____(1997b).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박소영(2004).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_____(2002).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23-134.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백수정(2002). 부모 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은숙(2000). 정서지능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유경(1994).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임(200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가효(1997). 인간발달: 발달심리적접근. 서울: 교문사.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환, 김현지(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1), 103- 119.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 77.

장명순(2002). 도시지역과 농 · 어촌 지역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정서지능 차이 비교 연구. 인천대학교 교

02장미선(11-21)2006.5.812:52PM페이지21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길화(2001). 가족구성 형태 및 형제자매 수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희(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차경림(2002).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미란(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배경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진(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점숙(1997).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 and 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9*, 83-96.

Brody, L. R., & Hall, J. A. (1993). *Gender and Emotion,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4-55.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14-30). NY: Basic Books.

Medinnus, G. R. (1967).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Tizard, B., & Hughes, M. (1984). *Young children learning*. London: Fontana.

(2005년 4월 30일 접수, 2006년 1월 4일 채택)